

안철수 “언제든 상의” 이준석 “검토 없어”...보수 빅텐트 온도차

21대 대선 최대 변수...국힘, 이준석 유세장 찾아가 단일화 구애

국민의힘 대선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간 '보수 빅텐트' 여부가 21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 측의 입장은 여전히 다르다.

국민의힘은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구애의 손짓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에게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하며 “보수 본기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이 후보에게 쇠신 의지를 밝히며 재차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최식에 참석해 이 후보와 조우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 언론에 공개할 정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선 후보) TV토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공약이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많은 국민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계엄과 독재에 반대한다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선거 레이스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 주면 좋겠다. 저도, 이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성사의 ‘마지노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25일 시작)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별도의 시한을 두지 않은 채 선거 직전까지라도 단일화 성사에 방점을 두고 설득 작업을 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가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밥을 함께 먹는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가 열린 경기도 성남 가천대 학생 식당을 찾았다.

학생들과 밥을 먹고 있던 이 후보는 안 위원장이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한 뒤 마주 앉았다.

이 후보가 “경영”하면 안철수 아닌가. 경영을 물어보라”고 안 위원장을 치켜세우자, 안 위원장은 학생에게 창업 관련 조언을 하며 “이 후보께서 좋은 내용들을 살펴보신 다음 본인 공약으로 쓰셔도 된다”고 화답했다.

안 위원장과 이 후보는 학식 행사를 마친 뒤 캠퍼스 내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20분가량 독대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만약 당으로 오시면 제가 나이로는 선배지만 잘 모시겠다”며 “김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으니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후보는 안 위원장이 ‘(단일화와 관련해) 언제든 상의해도 좋다’고 하자 “지금 당장 상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둘은 “추후 만남의 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1일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가 열린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능성을 열어놓자”고 합의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화 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하면서 “금전적 이유로 단일화할 거라느니 이준석이 한자리 받고 할 거라느니 이런 가설은 다 부정한다. 그런 건 정치하면서 제가 한 번도 이끌리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박지원, 금타 화재 수습 위해 고용위기지역 건의

당 지도부에 종합대책 강구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사진) 의원이 2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7차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광주 경제 65년을 지켜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번 화재로 거의 전소했다”면서 “현장에 가보니 소방관들이 8곳의 위험물질이 있는 곳을 사수해 피해를 줄였다. 소방관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구정장이 2000여명의 근로자 고용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건의해왔다”면서 “특히 인근 7만여명의 시민들의 건강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즉각 특고세를 교부해 주민 건강 검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기적으로는 광주 65년을 지켜온 공장이지만, 환경 문제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에서 잘 컨트롤해서 특히 대포단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이재명 후보 비서관 사칭 당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관 비서관을 사칭한 당원을 제명시켰다.

최근 일명 ‘노쇼(No-Show)’ 사기 범행이 잇따라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당이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 후보 비서관 비서관을 사칭한 당원 A씨를 비상징계 했다. 21일 밝혔다. 시당 조사결과 A씨는 광주시 5개 구청 비서관에 전화를 걸어 이 후보 비서관 비서관을 사칭해 후보자와 면담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구청 비서관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확인을 하는 절차에서 A씨의 사칭행위가 드러났다. 다만 A씨의 사칭으로 다른 사기 범행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선거캠프 등 활동을 빙자하거나, 명함을 이용해 노쇼 및 고품질 취 등 사기를 저지르는 범포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당 봉선동 간담회’ 지역구 정진욱 국회의원 불참 왜?

남구 ‘보수로 낙인’ 거부감 해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개최한 남구지역 간담회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중앙당과 시당이 광주지역 투표를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 방식 선거운동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광주 지역 보수 지지 성향 지역 ‘경청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21.9%로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민심을 경청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민주당 참석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선대위원장이 참석해 행사의 무게감과 비중을

보여했다.

정진욱(광주시 동남갑) 의원은 행사 시작 10분 전에 행사장에 도착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 의원은 “남구 민심이 예전 같지 않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해도 된다. 남구에 뭘 일 난 것처럼 할 필요가 없고,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심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민주당이었다”면서 “내 지지율이 88%대가 나왔다는 점에서 지난 총선 당시 민심이 돌아 온 것 아니냐”고 웃으며 참석 주민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 의원은 카페 옆에서 행사를 준비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이런 선거운동은 보지도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골목마다 사람을 만나러 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고 고함을 친 뒤 현장을 떠났다.

정 의원의 갑작스런 고성에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당황하자 현장 관계자가 “다소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을 박차고 나가자 주민들은 “왜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수근거렸다.

김 최고위원, 신 행정안전위원장, 양 광주선대위원장은 소란이 가라앉고 난 뒤 행사장에 입장해 주민 간담회를 순조롭게 마쳤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중앙당과 광주시당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당과 광주시당이 마련한 행사에 사실상 반기를 든 정 의원의 행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지역구를 ‘보수로 낙인찍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과 중앙당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의원은 21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행사불참 이유에 대해 “앞 뒤 다른 맥락이 존재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